

'출판사 등록법' 개정 시급하다

팽원순 교수, 출판학술세미나서 문제제기

사회전반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판의 자유로운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출판사 등록법'의 개정과 함께 출판책임의 자율규제를 위한 새로운 '출판윤리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출판학회(회장尹炯斗)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출판연구와 출판개발」이란 주제로 마련한 제3회 출판학술세미나(12월9일 프레스센터)에서 彭元順교수(한양대 신방과)는 「출판의 자유와 출판 발전」이란 발표를 통해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는 출판활동과 그 업무가 모두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출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우선 전근대적인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팽교수는 개정방향으로 ①'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절차로서 '신고'제로 고쳐져야 하고 ②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은 삭제돼야 하며 ③'결격사유' 조항도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팽교수는 특히 현행 納本制가 결명이나 판금 등 출판에 관한 사전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국회도서관 같은 곳에 보내는 납본만을 유지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팽교수는 이와함께 출판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은 정부나 행정관청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 공중에 대한



한국출판학회가 「출판연구와 출판개발」이란 주제로 마련한 제3회 출판학술세미나 전경(12월9일 프레스센터).

책임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출판인이 저야 할 책임으로서 ▲저작권의 존중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의 보호 ▲저속한 음란물이나 파괴적인 내용의 불량서적은 출판하지 않을 것 등을 예시했다.

아울러 그는, 출판인 자신에 의한 자율규제는 자율규제를 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출판인의 현상으로서의 '출판윤리강령'을 시대에 맞게 새로 제정하고 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판업무과정의 분석과 출판교육」이란 주제를 발표한 閔丙德교수(혜전전문대 출판과)는 현재 출판학자가 전문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원 등에 개설되어 있는 사실

과 연관, 산학협동을 위한 실무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판학과의 교육과정 편성문제를 제기했다.

閔교수는 출판의 기획·편집·제작·판매에 이르는 업무내용을 분석, 출판학과의 교육과정은 출판물 내용의 선택과 제작을 다루는 편집업무 쪽에 중점을 두되 판매·보급·경영 등 여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공선택이나 자유선택과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문대에서는 편집·교정의 기술적 업무가, 개방대학에서는 기획업무가, 산학대학에서는 총체적인 경영업무가 중점적으로 강조돼야 하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安春根씨(한국출판학회 고문)는



팽원순 교수



민병덕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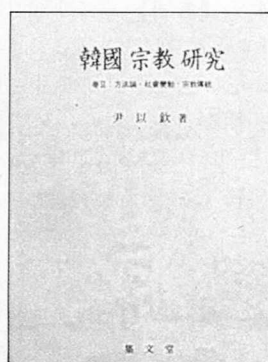
「출판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란 발표를 통해, 자신이 66년 처음으로 정규대학에서 출판강의를 시작하고 69년 출판학회를 발족시킨 이래 출판연구가 발전돼온 저간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출판이 합리적인 기업이 되고 출판업이 과학화되기 위해서는 출판의 이론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89년도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아리랑

아리랑은 이 땅,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며 민족의 애환을 간직한 민족의 숨결, 역사의 맥박 소리이다. 그러므로 아리랑은 한민족에게 있어서 시대와 지역과 사상을 초월하여 이어온 단 하나의 노래이며 또한 길이 불려야 할 노래이다. 이제 아리랑은 삼팔선을 넘나드는 통일의 노래이며; 백두와 한라의 힘찬 부동김의 소리이다. 보라! 저 동서 남해의 출렁임 속에 웅트립하는 땅, 우리의 국토, 우리의 조국 아리랑 나라!



韓國宗教研究(2)

한국 종교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섭렵과 통일된 관점을 유지하며 현대 종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현대 학국의 多宗教 상황은 우리 민족정신사의 지평에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이정표의 의미로서, 그 다종교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과거유산과 미래와의 조화를 기약한다.

집문당 서울 중구 신당1동 251-1
☎ 252-4657, 234-2227